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현재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3월 13일)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근대 발전 이끌었던 불교인 조명 본격화

종단협, 근대 불교 인물 홍보사업 추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격동의 근대기, 사회 발전을 이끈 불교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 본격화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4월 5일 간담회를 열고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홍보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상반기 선정 인물을 발표했다.

종단협이 4월부터 추진하는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홍보사업'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으로,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불교인들을 발굴·선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독립·문화 등 5개 분야에서 인물 12명 선발해 연구·조명
상반기에 신화수 등 6명 홍보
11월 중 인물 세미나 예정도

이에 따라 종단협은 자문위원단과 연구위원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4차례 회의를 통해 △독립 △문화 △예술 △교육(청년) △여성 등 5개 분야 40명의 후보군 중 12명을 선발해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자문위원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진각종 교법연구실장 수각 정사, 태고종 고시위원장 재흥 스님, 종단협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참여했다. 연구위원으로는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김경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 황상순 동국대 문화학술원 교수, 한동민 수원 화성박물관장,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성수 불교신문 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종단협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6명 씩 선정된 인물들을 홍보하고 11월 중 인물을 조명하는 종합 세미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12월까지 선정 인물들을 SNS 카드뉴스, 라디오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홍보 대상 인물 6명이 발표됐다. 신화수 스님은 통도사 신평 독립만세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으며, 광복단 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박노영은 신화수 스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뒤 하버드대학에서 첫 한국인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사회에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알렸다.

표충사서 출가한 박봉석은 불교 서지학 연구의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조선공공도서관 도서 분류표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박봉석은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김상언은 제주도 최대 무장 항일운동인 무오년 법정사 항일 운동을 김연일 스님과 함께 전개했다. 승무 대중화에 매진한 한성준, 한국 최초 여성 유화 화가이자 문학가, 여성운동가인 나혜석도 선양해야 하는 불교 인물로 꼽혔다.

하반기에는 △우봉운(여성) △고유섭(문화) △김규진(예술) △이종천(교육·청년) △강유문(교육·청년) △황의돈(교육·청년) 등을 조사·홍보할 예정이다.

종단협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근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불교 인물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근현대 사회 발전에 일임을 담당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부원장)은 "격변기에 사회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불교인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기억하고, 선양해 근대 한국불교가 국가 발전의 일임을 담당했던 것을 널리 알리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무처장 진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근대기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많은 불교인들이 있었지만, 많이 조명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인물 홍보사업을 통해 근대기 한국불교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인물 정리 3면〉



평화·생명의 燈, 서울광장 불 밝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명과 평화의 봉축 장엄등이 서울광장에서 불을 밝혔다. 서울광장에 점등 된 장엄등은 5월 11일까지 약 한달간 자비광명을 서울 시민들에게 전한다. 4월 5일 봉행된 봉축점등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폭 축소된 3년간의 점등식과 달리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성대하게 진행됐다. 올해 서울광장을 장엄한 봉축등은 '화엄사 사사자(四獅子) 석탑등'으로 국보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원형을 본따 만든 조형등이다. 이번 석탑등은 높이가 20m에 달하며 석탑의 기둥역할을 하는 사자 네 마리의 용맹성을 그대로 살려 한지로 제작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출범 1주년 동국대 건학위, 불교중흥 비전 선포

동국대 건학위원회 4월 7일 제3회 최고위서 공개

'동국발전 불교중흥' 비전 하에
메타버시티 등 중점 사업 발표
자문위 등 각계 네트워크 박차
4월 29일 1주년 기념식 봉행

동국대 건학위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불교중흥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4월 7일 서울 동국대 본관에서 제3회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학위 자문위원 위촉을 비롯해 건학위 발족 1주년을 맞은 사업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2022년 산하 기관별 비전 수립으로 '동국발전 불교중흥' 비전 하의 다양한 중점 사업 추진이 결의됐다.

중점사업 첫 번째는 메타버시티 플랫폼 구축이다. 여기에는 다부처 공동기획연구비 350억이 투입된다. 메타버시티 플랫폼은 메타버스, AI, VR 등 가상현실 기술과 연계하여, 명상과 불교수행 등을 접목,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현대문명 위기를 치유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중점사업으로 건학이념 구현 도서 발간도 활발히 진행된다. 불교사전, 부처님의 생애, 동국의 빛 편찬이 진행된다. 불교사전은 건학위 총재인 자승 스님이 동국대에 기증한 〈한국불교대사전〉을 토대로 새롭게 편찬되는 사전이다. 이와 함께 〈부처님의 생애〉도 새롭게 정리한다. 〈동국의 빛〉은 동국대 동문을 조명한 책이다.

또 다른 중점사업은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이다. 동국건학장학,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내리사랑장학 등으로 자발적 기부문화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장학제도에서 동국건학장학을 신설해 불교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네 번째 중점사업은 동국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국내최고 기업채용 박람회 '동국 잡(JOB) 페어(FAIR)' 개최다. 동국대는 불자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유수기업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채용 박람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축제화하여 재학생들도 참여해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밖에 종립학교를 통합확대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8개 법인 14개 종립학교, 비종교 일반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병 대상학교를 조사하고 경쟁력을 지닌 종립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통합과 지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장경 사업'도 진행된다. 총예산 100억 원 규모로 현대적 가치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대장경을 완성하는 대작불사다. 또 동국대 일산병원에 이어 불교병원을 상징하는 제2병원 건립을 위해 화성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을 1차 부지로 현재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다변화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과 법인 이하 17개 산하기관에 대한 동국총조사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건학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도 진행됐다. 총재 자승 스님은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민흥기 삼신화성산업㈜ 대표이사, 박동렬 세무법인화평 대표이사, 최진식 ㈜SIMPAC 회장, 조성원 ㈜조이시티 대표이사, 문선배 ㈜신화종합건설 회장 등 6명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건학위 1주년 기념식은 4월 29일 오전 11시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건학위 경과보고, 1주년 성과보고, 건학위 공로상 시상, 동국건학장학 장학증서 수여(서울 30명, 경주 12명), 불교서적편찬위원 위촉식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